

EC, 災害 긴급전화번호 統一推進

EC는 오는 92년 통합에 대비 각국의 긴급전화번호를 하나로 통일키로 최근 합의 했다.

EC회원국의 치안담당장관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현재 화재나 조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신고전화번호가 각국마다 상이하여 통합후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킬것에 대비, 긴급전화번호를 통일키로 하였다.

이들은 또 재해나 사고예방에 관한 각국의 DB를 서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K] [J] ■ GE 88 EU 0100 ■

싱가폴, 국가규모의 ISDN 추진

싱가폴 통신청이 다음달 초에 기업용을, 내년중에는 일반가정에까지 대상을 넓혀 ISDN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세계최초의 국가규모 ISDN서비스가 등장한다.

ISDN서비스는 NTT가 일본에서 4월부터 시작하고 있고, 프랑스 등도 도입하고 있지만 모두가 대상지역이 국내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비록 국토가 좁긴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규모의 ISDN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다.

싱가폴의 정보통신 장관에 의하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하루에 2~3시간을 사용할 경우 월 약 13~18만원 정도이며, 내년중에 일반가정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요금은 보다 싸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폴 정부는 통신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ISDN 계획에는 일본의 후지쓰가 전면 협력하고 있다. 후지쓰는 이것을 계기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통신기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싱가폴 통신청은 '85년 후지쓰와 협력하여 ISDN의 시험서비스를 개시했는데, 후지쓰는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한편 ISDN에 필요한 전화국용 교환기를 통신청에 납품해 왔다.

통신청은 현재까지 전화회선의 25%를 디지털화 하였으며, 90년대 초에는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때 교환기의 납품에 있어서 「AT & T」, 「노던텔레콤」등도 납품을 노리고 있으나, 후지쓰는 지금까지의 관계를 구실로 수주를 바라고 있다.